

'무예도보통지'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시대정신을 담다

〈무예를 그림과 해설로 풀어 설명한 종합 서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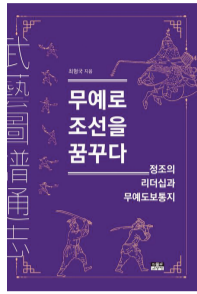
무예로 조선을 꿈꾸다

최형국 지음

흔히 조선의 정조는 개혁의 군주로 평가된다. 왕권 강화, 수원화성 축조 같은 외적인 치적 외에도 조선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조의 실용적 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예' 부분이다. 조선의 최고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가 정조시대에 완성됐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조는 문과 무를 병용하는 전략이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계책을 절감했다. '무예도보통지'는 그런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병서이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전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형국 박사가 펴낸 '무예로 조선을 꿈꾸다'는 정조의 리더십과 최고의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를 조명한 책이다. 말 그대로 무예를 그림과 해설로 풀어 설명한 종합 서적이다.



최 박사는 그동안 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그 가운데 '정조, 무예와 통하다'는 2021년 롯데출판문화대상본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정조가 즉위 초반에 발표한 '경장대교'의 핵심인 민산, 인재, 응정, 재용 같은 4대 개혁 과제는 그의 정치 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정조는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민산),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 나라를 살찌우고(인재), 군사제도를 강화해 국방력을 키우고(응정), 재물의 쓰임을 분명히 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한다(재용)는 정치적 이상향을 실천하고자 했다."

저자에 따르면 무예는 가장 전투적인 인간의 몸짓이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 칭한 것은 그만큼 전쟁이 많았음을 전제한다. 전쟁을 통해 인간은 강인해지고 발전했다는 견해다. 또한 저자는 "아리나하지만 완전한 파괴는 또 다른 변혁을 만드는 시험의 장이기에 전쟁은 인류의 문화 속에서 늘 함께했다"며 "그런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몸짓의 강화로 무예가 발전했다"고 강조한다.

무예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무예도보통지'는 실용과 위민이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한계를 딛고 보위에 오른 정조는 왕권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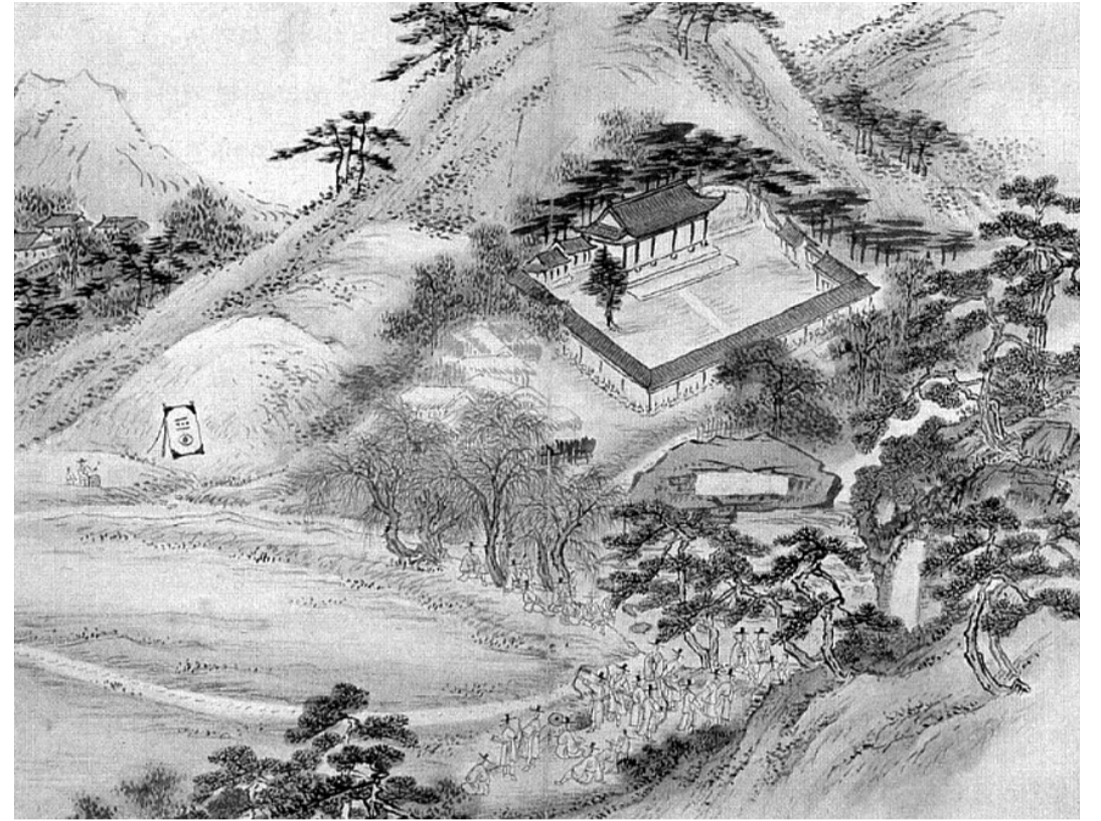
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군사제도 개혁, 군권 장악은 집권 토대를 닦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정조가 군사제도를 개혁했던 또 다른 이유는 외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16-17세기 양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방은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병자호란 패배는 조선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는 충격을 안겼다.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고구두'는 물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불모로 끌려간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다.

국방, 다시 말해 무기와 전술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무예를 모아 표준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적의 무기와 무예라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이 유연성은 위민이라는 실용성으로 연계된다. 무예를 전문으로 하는 군사들 외에도 일반 백성들도 써먹을 수 있게 배려를 했다. 무예 동작까지 그렸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 따라 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24기 무예가 수록돼 있다. 보병 무예 18기와 기병 무예 6기가 더해졌다. 권1에 장창을 비롯해 죽장창, 기창, 당파, 기창, 낭선이 담겨 있으며 권2에 쌍수도, 예도, 왜검, 교검이 수록돼 있다. 권3에는 제독검, 본독검, 쌍검, 마상월도 등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경비를 담당한 훈련도감은 도성 안쪽에 다섯 곳의 분영을 유지했는데, 그 중 하나가 북일영이다. (인물과사상사 제공)

저자는 "정조는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쉽게 현실에 적용하려 애썼다"며 "고전에 담긴 지식과 철학은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늘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물과사상사·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

임학수 외 지음



해안가에 폭풍이 치거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면 자칫 인근 마을에 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파도를 뛰어넘는 파도'라는 뜻을 지닌 용어가 있다. 바로 월파(越波)다. 큰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현상을 일컫는다. 건물의 높이까지 뛰어넘는 파도라면 재해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파도가 바람 또는 조류를 만나 제방에까지 밀고 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쳐오름'이라 하는데 월파의 불씨가 된다. 이렇듯 월파, 쳐오름 등은 풍광이 좋은 해안가 도로나 주변의 상가, 주택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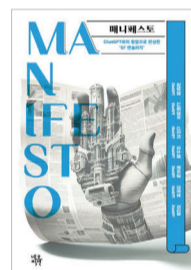
연안재해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 임학수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센터 주현희 박사의 '바다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는 연안을 둘러싼 재난의 종류와 발생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50주년에 즈음해 발간된 '미래를 꿈꾸는 해양 문고' 1차분 시리즈 가운데 49번째 기획물이다. 적도와 극지는 물론 오대양을 누비며 치열하고도 숨 가쁜 연구 활동의 결과물로 우리 바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연안재해를 과학적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들은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큰 문제로 본다. 과거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지고 그 피해규모도 상상 이상이다.

저자들은 더 이상 바다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한다. 지구 표면의 71퍼센트를 담당하며 기후 변화의 최대 조절자 역할을 하는 바다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성사·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니페스토

김달영 외 지음



"언어 모델로서 저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재능있는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관점과 스타일이 더해져 성공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흥미진진한 소설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책에 대한 추천사를 보면 일반의 유명인사일 거라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위의 추천사는 챗GPT가 썼다. 인간과 챗GPT의 첫 번째 공동 집필 소설집 '매니페스토' 발간에 대한 챗GPT의 추천사는 일반인의 그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생각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찾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라는 문구는 작가 자신이 책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집필에는 챗GPT 외에 김달영 SF 소설가(서울 과기대 교수)를 비롯해 영화 담당 기자 나폴랭어, 변호사 겸 SF 스토리 창작가 신조하, 북한이탈주민인 오소영, 소설가 윤여경, SF를 쓰는 전운호 작가, 야구를 기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쓰는 채강D가 참여했다. 책에는 황량한 풍경을 배경으로 낯선 소녀가 살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를 그린 '팅 빈 도시', 기후변화로 바다에 잠긴 송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희망 위에 지어진 것들' 등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매니페스토'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공존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그렸다. 미래의 어느 날 시문에 기고된 인간 단체와 외계인 연합의 입장문을 옮겼다.

책 뒷편에는 AI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소설 창작을 진행했는지 '협업일지'가 첨부돼 있어 다채로운 활용법을 볼 수 있다. 장작은, 글쓰기는 과연 인간만의 고유 영역일까. (네오픽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가 읽는 그림

BGA 백그라운드 아트웍스



최근 들어 다양한 구독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BGA 백그라운드 아트웍스'는 국내 최초의 데일리 미술 구독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는 플랫폼이다.

BGA의 첫 책 '내가 읽는 그림'은 '숨겨진 명화부터 동시대 작품까지 나만의 시선으로 감상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매일 밤 11시 BGA에서 발행해온 콘텐츠들 중 '나만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취지에 맞는 121편의 작품과 에세이를 선별해 수록했다.

책은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미술감상을 제안한다. 정지우, 오은, 이하림, 정다운, 한인선, 유지우, 최리아, 강민아, 손현선, 김연덕을 포함해 시인, 문학평론가, 방송작가, 화가, 큐레이터, 문화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22명의 필자들이 작품 121점의 도슨트를 맡았다.

필자들은 작품에 관련된 미술사적 배경이나 예술이론, 작가의 의도를 경직된 언어로 설명하는 대신 조심스럽고 진솔한 감상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한다.

저자들은 자신이 애정하는 작품을 소개하기 전, 마치 전시 서문처럼 글을 남겼다. 이어 '화가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공감·작고 사사로운 세계로부터', '조금 다르게 보기', '부유하는 사물들', '그림을 선물하기', '그림일기', '밤에 읊조리는 속삭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주로 다루는 작품은 해외 명화와 더불어 주로 동시대 한국 작가들이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저울을 다는 여인'을 비롯해 이한나·강예빈·양유연·최수진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